

우리 대학, 글로벌대학30 최종 선정

우리 대학이 세 번째 도전 끝에 교육부의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혁신 모델 7개 신규 선정' 사업(이하 글로벌대학30)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달 28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 대학(조선간호대 통합)과 전남대가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조선간호대와 함께 초고령화·저성장 위기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AI와 빅데이터, 바이오 등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통합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최대 1천5백억원을

을 지원받게 된다. '총괄총장제'를 통해 단일 거버넌스 체계 아래 대학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광주시는 사업 최종 선정됨에 따라 정주형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우리 대학과 조선간호대에 1천억원을 투입해 4대 특구(연구개발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문화예술특구) 기반 웰에이징밸리 구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교육 ▲연구개발(R&D) ▲청년 취창업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 과정 등



▲우리대학 전경

광주시장은 "이번 글로벌대학 선정은 대학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과 산업이 도약할 기회"라며 "향후 5년간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정주형 교육, 좋은 일자리, 청년이 머무는 광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김춘성 총장은 "이번 글로벌 대학 선정은 우리 대학 구성원과 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함께 빚어낸 값진 결실이다"며 "이제부터 진정한 출발점에 섰으며, 웰에이징 특성화를 통해 아시아 1위 웰에이징 대학으로 도약하고, 지역과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지인 기자
parkjiin313@naver.com

지역대학 첫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지난달 19일 우리 대학에서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막식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우리 대학 출신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후대에 영원히 전승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깊은 행사다.

이날 제막식에는 권오을 보건부 장관을 비롯해 오달면 6·25 참전유공자회 광주지부장, 그리고 관할 5개 지회장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빛냈다. 특히 보건부 장관의 참석은 국가 차원에서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예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



▲우리대학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사진 (출처: 국가보훈부)

동을 전했다.

우리 대학 관계자들과 재학생, 동문,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참전용사 유가족들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번에 제막된 명비는 6·25 전쟁 당시 우리 대학 출신으로 참전해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들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 상징적인 공간

에 자리 잡게 됐다. 명비는 후학들이 선배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 지부장은 감사패를 받으며 "이 명비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배들의 정신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제막식을 통해 우리 대학은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국정신을 이어가는 뜻깊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 5.10대 1, 전년 대비 상승

우리 대학이 지난달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4,629명 모집에 22,830명이 지원하여 4.93대 1(정원 내 5.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모집 정원을 확대해 모집했으며, 전년도 경쟁률 4.67대 1과 비교했을 때 경쟁률은 0.26%p 상승했으며, 지원자 수는 1,471명이 증가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일반전형) 5.09대 1,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5.24대 1, 학생부종합(서류전형) 9.83대 1, 학생부종합(실기전형) 3.88대 1로 집계됐다.

의학 계열의 경우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관심을 받았다. 학생부교과(일반전형)에서 의예과 13.71대 1, 치의예과 14.86대 1, 약학과 14.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에서는 의예과 6.82대 1, 치의예과 8.12대 1, 약학과 7.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종합(면접전형)에서는 의예과 18.17대 1, 치의예과 14.33대 1, 약학과 32.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학생부종합(서



류전형)에서는 의예과 14.83대 1, 치의예과 12.83대 1, 약학과 21.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의 전형별 모집 단위별 상위 경쟁률은 학생부교과(일반전형)에서는 ▲간호학과 ▲경찰행정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소방재난관리학과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부종합(면접전형)에서는 ▲경찰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간호학과 ▲경영학부 ▲토목공학과 순서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실기/실적(실기전형)에서는 ▲문예창작학과 ▲스포츠산업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순서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우리 대학 조윤형 입학처장은 "앞으로도 남은 전형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생 성공을 여는 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

공기업 관문 NCS 대비 위한 '공기업 직향권 NCS라인' 특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공기업 채용 시즌을 맞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공기업 직향권 NCS라인' 특강을 운영했다. 매년 하반기는 주요 공기업의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시기다.

특강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과 2일에 비대면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NCS는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공기업을 지망하는 준비생들에게는 필수적이다. 최근 공기업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 속에서 학력과 스펙보다 직무 관련 능력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공기업마다 시험의 구성과 난이도는 다르지만, 유형과 구조는 유사하다. 특강은 ▲코레일 라인 ▲산업인력공단 라인 ▲한전공 라인 세 가지 계열로 나눠 세부적인 기출을 다룬다. 우리 대학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공기업 채용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험

을 준비하도록 했다. 우리 대학은 공통 분야를 학습하며 중복 학습을 줄이고 여러 기관의 채용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했다.

김재홍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공기업 채용에 대한 준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여정인 수습기자
duwjddls1022@naver.com

지역 인재 양성 위한 '미래 모빌리티' 업무 협약 체결

미래 모빌리티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공유경제가 융합된 이동 수단과 서비스 전반을 의미한다. 친환경, 자율성, 소프트웨어 혁신 등이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이다.

다가오는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대학과 코비코(주)가 지난달 2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코비코 평동 2공장에서 '지역 정주 인재 양성 및 교육·연구 협력과제 공동 발굴·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코비코(주)는 민·군수 적재함, 건설기계 부품 등을 생산하며 현



▲협약식 참석자 단체사진

대·기아차의 주요 협력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코비코(주)와 맺은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교육·연구 공동 과제 발굴과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현장실

습 및 인턴십 운영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공동연구 수행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춘성 총장 ▲

김재홍 취업학생처장 ▲강진희 취업학생부처장 ▲김석환 교수 ▲코비코(주) 조광철 대표이사 ▲조준영 부사장 ▲오기호 공장장 ▲박재상 인사팀장 ▲김남철

구매팀장 ▲조경오 생산팀장 ▲박병식 기술팀장 총 11명과 첫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한 우리 대학 학생 5명이 자리했다.

김춘성 총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 지역산업 연계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 상생 교육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광철 코비코(주) 대표이사는 “조선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정인 수습기자

duwjddls1022@naver.com

MECA 분야 신진 연구자 육성 본격화

우리 대학이 광주광역시의 핵심 전략산업인 모빌리티(Mobility), 에너지(Energy), 반도체(Chip), 인공지능(AI) 융복합 분야(이하 MECA)의 신진 연구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달 12일 우리 대학 RISE 사업단은 대학원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MECA 인재 양성 신진 연구자(루키, ROOKIE) 연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석·박사급 연구 인재를 발굴 및 지원하고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취지 및 목적 ▲예산 사용 방법 ▲지원 범위 ▲성과 관리 및 사후 활용 계획 등이 안내됐으며, 수혜 대상자들이 연구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이번 사업을 통해 SCIE 및 SCOPUS 등 국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목표로 석·박사 과정생 120명을 선발, ▲



▲MECA 인재양성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사업 설명회 모습

학술 활동비 ▲연구 재료비 ▲논문 게재료 등 맞춤형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속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RISE 사업에 본격 참여해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기반 연구 활성화, 지역 정주 여건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MECA 분야를 특화 영역으로 삼아 ▲산학 공동 연구 과제 발굴 ▲고급 연구 인력 양성 ▲국제 공동연구 확대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MECA 인재 양성 신진 연구자(루키, ROOKIE) 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된 연구 성과는 향후 ▲국제 학술대회 발표 ▲학술제 운영 ▲대학원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확산 예정이며, 지역과 대학이 연계해 지속 가능한 연구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 수습기자

jkmjkm0106@naver.com

제2회 동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고은정 학우, 은메달 땀겨



▲고은정 학우가 메달 획득 후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고은정 학우(체육학과·1)가 국제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 고은정 학우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2회 동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높이뛰기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1학년 신입생이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과라 의미가 더욱 크다.

고은정 학우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맞이하는 기분이었다”며 “다음엔 더 높은 기록을 목표로 삼아 노력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명래 육상부 감독은 “신입생

이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것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계형 체육실장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고은정 학우의 은메달 소식은 큰 힘이 된다”며, “조선대학교 체육실 선수단이 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지인 기자

parkjiin313@naver.com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총장 김춘성 / 편집인_겸 주간_김재홍

편집국장_박지인 / 인쇄인_박만수

주 소_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편집실_062-230-6162 / FAX_062-234-3014 / 행정실_062-230-6166

제보 및 문의 : chnews21@daum.net

☎ 230-6162

지방대학 수시 모집 '빨간불'…입시 위기 가속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국 4년제 일반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경쟁률 3대 1 이하를 기록한 대학이 속출하면서 정원미달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수험생이 늘었음에도 지방대의 위기는 오히려 심화하는 양상이다.

수도권과 지방, 3배 벌어진 경쟁
률: 경쟁률 격차와 미달 위기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는 한국 대학 입시의 극명한 양극화를 보여준다. 전국 192개 대학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9.77대 1로 전년(9.42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권역별로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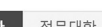
서울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8.83대 1이다. 경인권은 13.08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6.49대 1에 불과하다. 서울권과 지방권의 경쟁률 격차는 무려 2.9배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선호도 차이를 넘어, 지방대학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개별 대학 경쟁률은 더 극적이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대학은 성균관대로 32.49대 1이었다. 한양대 30.99대 1, 중앙대 30.39대 1, 서강대 28.83대 1, 건국대 25.81대 1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대학 중 9개가 서울 소재 대학이었으며, 유일한 예외는 가천대(글로벌, 23.48대 1)였다.

지방권 최고 경쟁률 대학은 경북대로 14.51대 1을 기록했다. 단국대(천안) 11.11대 1, 충북대 10.90대 1, 건국대(글로컬) 10.59대 1, 연세대(미래) 10.48대 1, 부산대 10.13대 1이 그 뒤를 따랐다. 지방 거점국립대학조차 서울권 중위권 대학의 경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형별로는 아주대 약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이 708.20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대 경영
학부 논술전형은 321.60대 1을 보
였다. 특정 인기 학과와 전형으로
의 쏠림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수험생이 수시에
서 최대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 6대 1 이하면 사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	
일반대학	전문대학
	수능 시험일 2025년 11월 13일 (목) 시험정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입정보 대학별 모집요강, 대입상담, 입시전형/결과,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2026학년도 대학별모집요강 (출처: 네이버)

조선대학교 입학처 JOSUN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대입홈페이지	입학홈페이지	
수시	◇수시모집◇ 2026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바로가기	수시	2026학년도 군사학과전형 1단계합격자 발표 바로가기
수시	202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 기술 바로가기	수시	2026학년도 군사학과전형 수험표 출력하기
수시	202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 기술 바로가기	수시	2026학년도 신/편입학 수험생 연락처 변경 신청
수시	202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 기술 바로가기	수시	2026학년도 전공이야기 책자 바로가기

▲2026학년도 조선대학교 수시모집요강 (출처: 조선대학교)

[illegible]

▲지역별 대학교 모집 현황 (출처: 교육부)

상 총원이 어렵다고 본다. 정시모집으로 일부 총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쟁률 3대 1 이하는 심각한 위기 신호다. 그런데 올해 일부 대학들은 경쟁률 1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0점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경영위기사
학으로 지정한 대구예술대는 215
명 모집에 147명이 지원해 0.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일장신
대는 241명 모집에 254명이 지원
해 0.94대 1에 그쳤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금강대는 78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해 0.45대 1을 기록했다. 한국침례신학대는 182명 모집에 112명이 지원해 0.62대 1에 그쳤다. 장로회신학대학교도 2.76대 1로 미달 위험에 처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7곳 중 일반대 10개교가 6대 1 이하의 경쟁률을 보이며 학령 인구 감소가 더 이상 미래의 위기가 아닌 현실의 문제임을 증명했다.

수치상으로는 위기가 심각하지
만,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도 포착
된다. 수치 6회 지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미달로 볼 수 있는 경쟁률
6대 1 미만 대학 수는 전년 68곳에
서 올해 53곳으로 15곳 감소했다.
권역별로도 호남은 18곳에서 16곳
으로, 부울경은 16곳에서 13곳으
로, 충청은 20곳에서 13곳으로 줄
었다. 대구·경북은 8곳에서 7곳으
로, 강원은 5곳에서 3곳으로 감소
했다.

지방권 전 권역의 평균 경쟁률도 상승했다. 대구·경북은 전년 6.47대 1에서 7.30대 1로, 충청은 6.53대 1에서 7.12대 1로, 강원은 6.10대 1에서 6.80대 1로, 부울경은 5.79대 1에서 6.23대 1로, 호남은 4.89대 1에서 5.08대 1로, 제주는 4.88대 1에서 5.21대 1로 각각 올랐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수도권 집중에서 안정 지원으로: 변화하는 입시 지형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방권 지원자의 급증이다. 지방권 대학 지원자는 전년 대비 10.2%(10만 4,272명) 증가했다. 이는 서울권 2.1%(1만 8,818명), 경인권 0.1%(511명) 증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만 2,044

명(12.4%), 충청이 3만 9,274명(10.6%), 강원이 7,384명(11.7%), 호남이 1만 5,662명(9.8%), 부울경이 1만 9,224명(8.0%), 제주가 684명(7.8%) 증가했다.

이는 고3 수험생 수 증가의 효과
가 지방권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수험생들의 입시 전
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취업난이라는 현실이 수험생들의 선택을 바꾸고 있다. 과거처럼 무조건 수도권, 특히 경인권으로의 무리한 상향 지원을 하기보다는 실리를 따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의대 모집 축소와 '사탐런' 등 입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됐다.

주목할 점은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권 대규모 이동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방권 지원자 증가는 주로 지역 수험생들이 지역 대학을 선택한 결과다. 지방 청년들이 무리하게 수도권 진학을 시도하기보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려고 선택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수도권 대학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대학별 지원자 감소 비중을 보면 서울권은 42개 대학 중 20개(47.6%)가 전년 대비 지원자가 줄었다. 경인권은 40개 대학 중 17개(42.5%)가 감소했다. 반면 지방권은 110개 대학 중 16개(14.5%)만 줄었고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이 아니다. 서울권과 경인권 내에서도 대학 간 선호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서 “지방대 육성 정책, 지역 경기, 지방권 대학의 취업 환경에 따라 내년 지형은 달라질 수 있고, 서울·경인권 대학이라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이 항상 우위”라는 인식이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단위 총체적 난국

지방대학의 위기는 여전하다. 오히려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명성을 떨치던 지방 사립대들까지 경쟁률 6대 1을 넘지 못하며 위기에 직면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경
성대·동명대·동의대·부산외대·영
산대·울산대·가야대·경남대·인제

대·창신대 등이 3대 1에서 6대 1 사이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경운대·김천대·대구대·동국대(WISE)·동양대·한동대 등이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호남·제주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 대학을 포함한 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송원대·호남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동신대·세한대·초당대 등 대다수 대학이 경쟁률 6대 1 이하를 기록했다. 강원·대전·충청 지역에서도 가톨릭관동대·상지대·한라대·한림대·극동대·세명대·유원대·중원대·청주대·나사렛대·남서울대·선문대·청운대·한남대 등 다수의 대학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과거 지역에서 명문으로 인정받던 사립대들조차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학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한다.

지방대 위기는 단순히 대학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이는 다시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청년 인재를 붙잡기 위해 지역 대학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지만, 근본적 해법 마련은 요원하다.

지방대 위기는 곧 지방 소멸의 신호탄이다.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의 미래도 사라진다. 이제는 대학 정원 감축과 같은 단편적 대책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복원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를 기회로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는 지방대학에 대한 경고음이자, 동시에 변화의 기회다. 지방권 지원자 증가와 미달 대학 수 감소는 지방대학도 희망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험생들의 실리형 안정 지원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교육의 질적 혁신 ▲산학협력 강화 ▲취업을 제고 등 대학 자체의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실질적 재정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혁신하지 못하는 대학은 살아남을 수 없다.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인액터스 조선 BUZZLY팀 한여진(환경공학과·3), 김현주 학우(경영학부·4)

꿀벌의 날갯짓이 다시 시작된 순간, 그 이야기를 듣다



▲한여진 학우
(인액터스 조선 6기 회장)



▲김현주 학우
(인액터스 조선 7기 회장)

우리 대학 인액터스 조선 BUZZLY팀이 국내 최대 규모 창업대회인 ‘2025 인액터스 전국 대회(National Competition, 이하 NC)’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3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한여진 학우(인액터스 조선 6기 회장)와 김현주 학우(인액터스 조선 7기 회장)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인액터스란?

한여진 학우는 인액터스가 기업가 정신의 실천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학우는 구체적으로 “오늘의 리더인 기업인과 교수, 내일의 리더인 대학생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기업가 정신을 통한 임팩트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는 단체”라며 “인액터스에서는 단순한 아이디어 회의나 대학교 동아리에서 벗어나 ▲제품 기획 및 개발 ▲사업 파트너십 체결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액터스 조선은 회장단, 4개의 디비전(▲홍보부 ▲운영부 ▲재무부 ▲교육부), 2개의 프로젝트(▲마감해요 ▲BUZZLY)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2025 인액터스 전국 대회란?

김현주 학우는 “2025 인액터스 전국 대회(이하 NC)가 인액터스 코리아 최대의 축제, 인액터스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행사로 각 팀들이 1년 동안 만들어 온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여진 학우는 “1년에 단 한 번, 매년 7월에 NC가 개최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BUZZLY팀의 취지와 해결하려고 한 문제

한여진 학우는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 ▲농약 사용 ▲밀원수 감소 ▲바이러스 ▲해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의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꿀벌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배 농사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하얀 붓으로 꽃에 하나씩 붓질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의문이 들었고, 최근 2~3년에 사이에 꿀벌이 폐사한다는 소식이 미디어에 거론되기 시작하며 꿀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BUZZLY팀은 그중 해충인 꿀벌응애에 집중하였는데, 응애에 집중한 이유는 “가장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요

소이자, 피해를 보고 있는 양봉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통제 가능한 유일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애는 그 자체로 기생하여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떨어뜨려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률을 높이는 촉진자 역할이자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핵심 취지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한 부분

김현주 학우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총괄·테크니션·발표의 합을 맞추는 것에 가장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짧은 발표 시간 안에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NC 당일 숙소에서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발표팀이 아닌 다른 팀들까지 대본을 외워버리는 웃픈 상황도 생겼다고 말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한 방법

김현주 학우는 대회를 12명이 함께 준비하다 보니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결국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다”며 “그렇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기에, 서로를 배려하며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팀과 차별화된 BUZZLY팀만의 강점

한여진 학우는 인액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창업 소재가 아니라고 말했다. “꿀벌 문제를 생태나 환경 이슈로만 보지 않고 ▲농업 ▲지역 ▲사람을 연결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했다”며 “여기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친환경 미생물 솔루션을 대학생이 직접 연구해서 개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 문제니까 단순히 업사이클링을 한 다거나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직접 농가에 가서 문제를 듣고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나갔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부터 해결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행력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끌고 왔다는 점이 BUZZLY팀의 경쟁력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국 3위라는 큰 성과의 소감

김현주 학우는 전국 3위라는 성과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놀라움과 함께 큰 감사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사실 세미나일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지고 생각했는데, 최종 3위라는 결과를 얻으니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며 특히 “최종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지방대학이 차지한 것은 드물고도 뜻깊은 일이었고, 그 안에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는 WC(Enactus World Cup)까지 도전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겼고, 무엇보다 우리 대학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이나 느낀 점

김현주 학우는 이번 NC를 통해 인액터스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 생활 속에서 점점 열정이 희미해질 무렵이었는데, NC에 참가하며 ‘이것이야말로 대학생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도전과 열정이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을 인액터스로 장식하겠다는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었던 순간이어서 더욱 뜻깊었다”고도 설명했다. 한여진 학우는 BUZZLY팀의 창립자이자 환경공학과 학생으로서, 이번 프로젝트가 아주 작게나마

꿀벌과 생태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했다기보다는 이 활동을 통해 진로도 훨씬 명확해졌고, 앞으로 환경과 생태 분야에서 더 깊은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앞으로는 BUZZLY팀처럼 실질적인 솔루션을 설계하는 일을 넘어서, 국내외 박사 과정까지 도전하며 학문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번 경험은 그 방향을 확인시켜 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BUZZLY팀의 향후 발전 방향이나 목표

한여진 학우는 BUZZLY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응애를 방제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하며 응애는 문제의 시작점일 뿐이고 실제로 해결하고 싶은 건 꿀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응애 방제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기 보다는 꿀벌 생존 문제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며 “이 다음엔 ▲기후변화 ▲질병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 기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BUZZLY팀의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솔루션을 양봉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과 데이터 기반의 방제 관리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생태 교육 ▲국제 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여진 학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액터스 조선팀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감사함을 표현하였고, 김현주 학우도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차기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다.

전국민 수습기자

jkmkjm0106@naver.com



▲우리 대학 인액터스 BUZZLY팀의 수상 단체사진



AI가 해킹하는 시대



SKT 해킹 사고

지난 4월 19일, SK텔레콤(SKTEL)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SKTEL은 19일 해커에 의한 공격으로 유심(USIM) 등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심은 개인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유출될 경우 타인이 신원을 도용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국내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SKTEL의 해킹 사고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SKTEL 측은 즉각적인 조치를 하며 문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고객들을 안심시켰지만, SKTEL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통신사의 해킹 피해가 일어난 것은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피해 이후로 약 2년 4개월 만이다.

구체적 사례와 대응

SKTEL은 유출 정황을 파악한 뒤 ▲전체 시스템 전수 조사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추가로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한 유심 보호 서비스와 무료 교체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그 때문에 각 지역 대리점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로 붐볐다. 그러나 SKTEL의 무료 보상 서비스를 사칭해 잘못된 링크로 유입시키는 해킹이 발생해 또 다른 위험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SKTEL에 이어 지난 9월, KT와 LG유플러스 통신사에서도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I 경쟁력이 높았던 한국에서 주요 통신사가 모두 해킹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들은 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해킹으로 인한 내부 유출 정황을 발견했음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통신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SKTEL은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마케팅으로 일부 민심을 회복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서버 폐쇄 등 은폐 의혹으로 이미지 회복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방어대회 포스터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SKT 피해보상 고객감사제

해킹 기술의 진화

시대가 변할수록 해킹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AI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해킹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AI 해킹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다. 기존 해킹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려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면 AI 해킹은 생성형 AI의 취약점을 공략해 인공지능 자체를 공격하거나 조작할 수 있게 진화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I와 결합한 딥페이크 사례가 있다.

지난달, 북한 해커 조직이 챗GPT로 만든 가짜 공무원증을 사용해 군 관계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때 사용한 사진이 AI를 통한 딥페이크이다. 또한 같은달 29일에는 국내 업체와 스페인 수출업체 사이의 이메일을 해킹해 물품 대금을 갈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킹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제는 AI를 통해 쉽게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전문 조직이 아닌에도 교묘하게 AI를 이용함으로써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와 기업의 해킹 대응

진화하는 해킹 기술을 막지 못한다면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해킹 방지 기술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28일, 이달 31일에 인공지능 해킹 방어 대회의 예선을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이번 대회가 AI 보안을 선도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뱅크도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기술 성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성과는 ▲프롬프트 공격 탐지 기술 ▲다중 대화 공격 탐지 확장 ▲출력 가드레일 연구 등 세 가지다. 해커가 정보를 캐내는 공격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차단하며 AI의 우회 시도를 추적하고 판단하여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순차적으로 도입돼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알리바바의 한국 데이터센터 추가 구축 발표,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등의 노력이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

회(KEA)는 이달 22일, 전자정보 분야 해외 기술 규제 설명회를 개최해 ▲글로벌 인공지능(AI) 정책 변화와 규제 대응 포인트 ▲디지털 제품의 사이버 보안 통합 규제 동향 및 대응 전략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의 데이터 규제 동향과 그 시사점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 사고의 법적 책임 ▲디지털 제품 역량과 데이터 기반 순환 경제 규제 등의 주제를 다룬다. 설명회 내에서 구체적인 AI 규제 정책과 보안 정책을 다룬다면 국내의 피해 사례를 줄일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정교해지는 AI 해킹을 방지하고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킹을 막기는 쉽지 않다. 국민들은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

해킹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버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 리터러시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과 허구의 정보를 분류하고 해독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구별해낼 수 있다면 피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이중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정보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 기업은 사고 발생 시 투명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후 발생뿐만 아니라 사전에 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킹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세계 각국에서 침해의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국경이 없는 사이버 범죄인 만큼 다른 국가의 기술 과도 협력해야 할 때이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따라오지만, 고차원의 해킹과 같은 문제도 발생한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부터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정인 수습기자

duwjddls1022@naver.com

교수칼럼

질문하는 존재로서의 대학의 의미

“쓸모없는 나무라네. 그것으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짜면 곧 썩고 그릇을 만들면 쉬 부서지며 문을 짜면 수액이 흐르고 기둥을 만들면 썩이 슬 것이야. 저 나무는 재목이 못 되네.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니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지”

〈장자〉의 인간세(人間世) 편에 나오는 말이다. 장인(匠人) 목수와 제자가 있었다. 큰 나무를 베어가지 않는 장인 목수가 의아해 제자는 별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장인 목수는 ‘쓸모없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큰 나무는 ‘쓸모없기 때문’에 별목되지 않고 타고난 수명을 누렸다. 그래서 오래도록 사당(祠堂)을 지키고, 누워 쉴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반면에 쓸모가 있는 나무는 그 빼어남으로 인하여 오히려 빠른 시간에 베이고 잘리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 통찰을 제시한다.

자신의 용도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다. 인간은 대상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평가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기준은 때로 편협하며, 대상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인간이 바라보는 실용성의 한계이다

또 하나는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이다. 쓸모없다고 버려두었던 나무는 우리가 오래도록 쉴 그늘이라는 쓸모를 만들어 내었다. 무한한 쓸모를 가진 존재가 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장자는 쓸모없음 속에 숨겨진 쓸모를 발견하게 한다. 문제는 대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이분법적 틀이었다.

이 우화는 우리에게 묻는다. 정말 쓸모있는 나무는 무엇일까? 무엇이 진짜 ‘쓸모 있는’ 것인가? 그늘을 주는 나무처럼, 직접적인 기능은 없지만 존재 자체로 의미 있



김미령 교수
(자유전공학부)

는 것, 누군가를 쉬게 하고, 숨 쉬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존재일 것이다.

얼마 전 우리 대학은 ‘빅데이터 기반 웰 에이징 글로벌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우리 대학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며 고령화 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선언이다.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대학의 ‘웰 에이징’ 사업은 대학의 역할을 다시 정의한다. 단

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연구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지식 생산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과 사회 모두에게 희망적인 변화다. 대학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고, 사회는 기술을 통해 더 따뜻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 기술은 인간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외로움, 상실, 삶의 의미 같은 정서적·철학적 문제는 숫자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문학은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고, 삶의 본질을 묻는 학문이다. 기술이 놓치는 인간다움의 영역을 채우는 것은, 인문학인 것이다.

인문학은 ‘답’을 제공하는 학문이 아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 철학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를 묻고, 문학은 “사랑과 상실은 왜 반복되는가?”를 되짚는다. 이런 질문은 실용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술이 놓치는 부분을 비춰준다.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유를 시작하게 하는 불씨이며, 자기 성찰의 도구다.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계가 아닌 존재라는 증거다. AI는 답을 줄 수 있지만, 질문은 인간만이 던질 수 있다.

장자의 나무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인문학은 베이지 않고 살아남아 그늘을 만든다.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삶을 성찰하며, 인간다움을 되새긴다. 빅데이터 기반 웰 에이징 사업이 그늘을 넓히는 기술이라면, 인문학은 그 그늘에 온기를 더하는 사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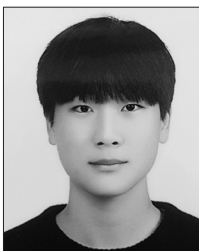
서석대

불편한 진실

최근 프랑스에서 전국적으로 큰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의 원인은 프랑스 정부의 예산 삭감안이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GDP의 5.8%로 유럽의 평균인 3.1%를 웃돌고 국가 부채 또한 GDP의 113%를 넘어 유럽 최고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프랑스 정부가 ▲연금 동결 ▲공공 지출 삭감 ▲건강 보험 지출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제시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모든 것을 봉쇄하자’라는 구호로 프랑스 정부의 개혁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의 옳고 그름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프랑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고,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모든 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익히 알고 있듯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젊은 인구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복지 비용 증가와 세수 감소는 예견된 미래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2060년대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최근 건강 보험이 2033년에 모두 소진



정재우 기자
ekdmnm@naver.com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세수 구조의 재점검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프랑스처럼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건강 보험 적자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미래의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의 축소, 혹은 복지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최근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은 크다. 기성세대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문장으로 개혁안을 설명했지만 인구 구조에 따라 계산해 보면 기성세대는 더 받고 미래 세대는 더 받거나 심지어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조차 없는 개혁안이었다. 결국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주는, 안 하느니만 못한 개혁안이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봤듯이 타협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렵다는 핑계로 논의를 내팽개친다면, 재정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그리스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비록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논의를 시작한 프랑스 정부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청년의 담(談)

도박과 기회는 한 꺾 차이

물가는 치솟고 집값은 오르는데 취업난은 심각한 요즘, 청년들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돈’이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시도한다. 그들은 저축을 넘어 투자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시장에 뛰어난 청년들이 증가했다. 고물가 시대 속에서 현재 주어지는 연봉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불안감, 단기간에 돈을 벌릴 수 있다는 기대 등이 이유이다. 요즘 주식은 토스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앱으로 천 원 단위의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이처럼 간편한 방식이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고, SNS를 통한 정보는 강한 과급력을 일으켰다.

하지만 접근이 쉬운 만큼 리스크도 따라온다. 빚투,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대출을 통한 주식,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띄고 있어 자칫 큰 손실을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 습관은 청년 주식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큰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는 반면, 빚을 떠안은 사례도 적지 않다.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투자 습관을 지닐 수 있을까?

불확실한 정보와 미흡한 지식으로는 주



여정인 수습기자
duwjdlis1022@naver.com

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채테크 교육을 듣거나 유튜브를 통한 기초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만이 아니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는 투자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 맞춤형 금융 교육을 제공하거나 현

재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 청약 ▲청년 도약계좌 등의 제도들의 홍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금융 교육도 하나의 방법이다. 짧은 기간에 큰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의 투자 유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변화할수록 투자의 안정성도 증가할 것이다.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은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하며 정부는 그 과정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제도가 뒷받침될 때, 청년 주식은 도박이 아닌 기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사설

‘글로벌대학30’, 변화를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지난 9월 말, 우리 대학이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Global University 30)’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지난해 예비지정에서 탈락되어 수많은 학내 갈등이 빚어졌던 기억을 되새겨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정을 검불게 물들었던 현수막들도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다시 희망으로 활기찬 캠퍼스로 돌아왔다. 이번 글로벌대학30 사업에는 전국 9개 대학(7개 모델)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그중 우리 대학은 조선간호대학교와의 통합형 모델로 참여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웰에이징(Well-Aging) 특성화’를 내세운 글로벌 혁신대학의 출범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속 가능한 구조 개혁의 난제가 깊게 놓여 있다.

그간 우리 대학은 여러 차례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재정 악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학과 통폐합, 인력 재배치, 조직 슬림화가 절실했지만, 내부 합의 부족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개혁의 칼날은 매번 무뎠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구조조정은 ‘논의만 있는 주제’로 남고, 실적은 미흡했다. 이번 글로벌대학30 선정은 이러한 현실 위에 놓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우리 대학의 혁신계획서는 웰에이징을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에이지테크·라이프케어 분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전문학사에서 박사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AI 기반 빅데이터 정밀의료 연구, 노인성 질환 장기추적 연구, 신약 개발용 펩타이드 연구, 그리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실증 모델 수출까지 포괄하는 야심찬 구상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우리 대학이 지난 수년간 보여준 가장 큰 약점은 구조 개혁의 실행력 부재다. 대학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교수 사회의 합의와 학생 참여, 행정적 효율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혁신은 ‘사업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문서가 될 뿐이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 기존의 학문 체계와 조직 문화를 실질적으

로 바꾸지 못한 채, 외형적 프로젝트 중심의 대응에 그쳐왔다. 이제는 글로벌대학30의 이름 아래 그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통합이다.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니라, 전문직 교육과 학문연구 중심 대학의 문화적·제도적 융합이라는 난제를 내포한다. 간호대의 직업교육 중심성과 종합대학의 학문 중심성이 조화를 이루려면, 단순한 학과 병합이 아닌 학문적 공동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현실은 여전히 각 단과대가 분절된 섬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협력보다는 분리와 관행이 익숙한 구조다.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것이다.

또한 웰에이징이라는 테마 역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투자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노인성 질환, 정밀의료, AI 기반 헬스케어는 모두 막대한 연구비와 고급 인프라를 요구한다. 대학이 이를 자생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여

력과 인적 자원의 균형이 미흡하다. 5년간의 정부의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 조선대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 이후의 자립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도 빨리 그려야 한다.

글로벌대학30의 의미는 ‘변화’에 있다. 이번 사업은 단지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행정과 학문, 교수와 학생, 대학과 지역이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한, 대학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우리 대학이 이 사업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려면, 불편한 개혁과 진통을 감수하는 용기와 미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글로벌대학30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대학의 새로운 미래가 될지, 또 하나의 국가 지원사업으로 끝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변화를 말하는 것은 쉽지만, 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 어려운 길을 외면하지 않을 때, 조선대학교는 비로소 지역의 대학을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데스크에서

혐오의 시대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과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대림동 주변에서 ‘혐중’ 시위가 폭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극우 세력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시작해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더욱 과열된 모습이다. 최근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과 중국을 엮어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납치해 장기매매를 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관광 업계에서는 이러한 혐오 정서가 퍼지면서 관광 활성화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경고에도 혐중 시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10여 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혐한 시위’를 겪었음에도 또다시 혐오를 이어가고 있다.

SNS와 미디어에서는 사실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확



박 지 인 편집국장
parkjiin313@naver.com

산을 걸잡기 어려워졌고, 개인화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만을 위주로 보여주며 진실을 왜곡시킨다. 미디어에서는 ‘속보 경쟁’으로 사실확인 없는 자극성 보도가 넘쳐나고, 특정한 사실에 의견을 덧붙여 재생산된 거짓 정보가 다시 일부 매체를 통해 다시 전파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들이 곧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확증편향을 경계하고 알고리즘을 거슬러 가야 한다. 쉽게 전파되는 혐오 정서를 경계하고 쏟아지는 정보와 알고리즘 사이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내가 아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특히 자신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레거시 미디어를 접할 필요가 있다.

‘혐오의 시대’라는 말을 위안 삼아 많은 이들은 거침없이 혐오 정서를 표현한다. 혐오의 시대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혐오의 시대를 만들어 냈다. 표현의 자유라며 혐오가 일상이 된 모습은 모두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혐오 정서가 한국 사회에서 주류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표현이 난무하며 집단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고 그른 것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는 단순하고 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 둘로 나눌 수 없고, 모든 현상을 두 가지 상황으로만 판단할 수도 없다. 진실은 불편하고 거짓은 쉽다는 이유로, 비판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혐오를 멈춰 “혐오의 시대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얇은 핑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제37회 조대문화상 공모전

조대문화상
공모전

2025. 10. 13. ~ 11. 16

공모 부문 및 분량

시 - 1인당 3~5편 이상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논설/평론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수필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제출방법

학생복지팀 또는 조대신문 메일
(chnews21@daum.net) 통해 제출
제출 서류 목록: ① 공모신청서 1부 (PDF파일)
② 공모작 1부 (한글파일)
③ 재학생증명서 1부 (PDF파일)

공모대상

조선대학교 재학생

상금

부문 관련 없이 당선작은 25만 원,佳作는 5만 원
(총 4개 부문)(시, 단편소설, 논평, 수필)

문의처

조선대학교 조대신문사 (010-2589-9484)
조대신문 인스타(chnews21)

안내사항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음
- 표절, 도용 및 과거 공모전 출품 작품 수상 제외, 수상작으로 선정된 후 표절, 도용 및 타 공모전 출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함
- 출품작의 표절, 도용, 초상권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자가 응모작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수상 작품은 조대신문에 게재함



지금 우리 학교는



날씨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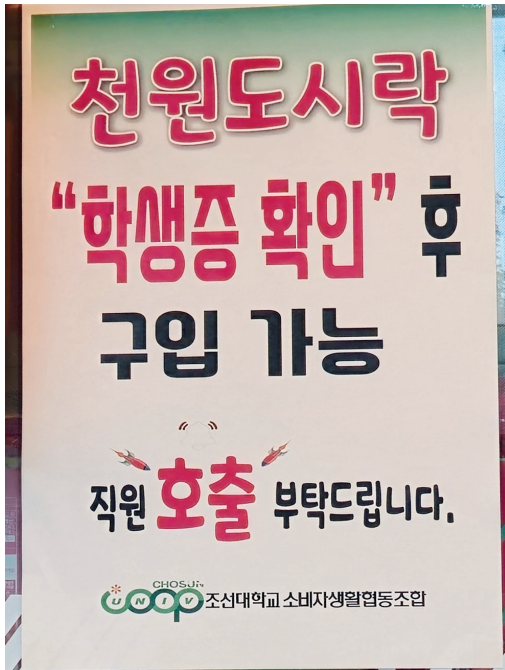
교내 무분별한 종교 행위 논란

최근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특정 종교 단체가 1,000원의 아침밥 도시락을 구매해 간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아침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외부인의 1,000원의 아침밥 구매를 막았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학생증 검사 등 우리 대학의 학생인지 확인하는 조치 없이 1,000원의 아침밥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런 허점을 틈타 우리 대학 내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는 외부인이 구매해 재학생들이 구매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우리 대학의 생협은 학생증을 확인하고 1,000원의 아침밥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번 1,000원의 아침밥 논란 이전에도 우리 대학은 특정 종교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우리 대학 캠퍼스 길을 걷다 보면 설문 조사나 심리 검사를 가장해 말을 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동아리에 들어갈 때 특정 종교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동아리 모집 글의 말미에는 보통 자신들이 특정 단체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가 쓰여 있다.

이들의 포교 방식은 교묘하다. 일반 기독교나 불교가 자신이 속한 종교를 명확히 밝히며 전도하는 것과 달리 일부 종교 단체는 자신의 단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설문 조사를 가장한 접근 또는 동아리 활동을 이용한 친분 쌓기 등의 활동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포교 방식인데, 친분이 쌓이면 자신이 속한 단체로 데려가 거부감을 낮추고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다.



▲우리 대학 생협에 붙어있는 안내문

일부 단체는 정상적인 기독교 단체인 척하며 성경 공부 모임을 여는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배움의 장인 대학에서 특정 종교처럼 옳지 않은 사상을 배워가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일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포교 활동을 막기 위해 개인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에서 무분별한 포교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대학과 개인의 노력 모두가 중요하다.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

만추(晩秋)의 계절



가을의 절정인 10월이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형적인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사 냉각으로 인해 아침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이 많아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덮임이 적고 맑은 날이 많아 연중 가장 쾌적하게 느껴지는 달 중 하나다. 평균 기온은 대체로 평년 수준(15~18℃)을 유지하며, 초가을의 잔열이 물러나고 선선함을 넘어 서늘한 기온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침과 낮의 기온 차는 더욱 커진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기온이 하강하며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내외로 떨어지기 쉽다. 이는 밤사이 지표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복사 냉각 현상 때문으로,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겉옷을 쉽게 걸치고 벗을 수 있는 '레이어드' 방식의 옷차림이 유용하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간헐적으로 내릴 수 있으나, 강수일수가 적고 전체적인 강수량도 많지 않아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맑은 날씨와 낮은 습도로 인해 대기가 건조해지기 쉬워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또한 건조한 공기는 피부와 호흡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내 습도 조절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10월 중순부터 하순에 걸쳐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감상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사회문화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 왜 논란이 됐을까?

지난달 23일 카카오톡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며 많은 사용자의 반발을 일으켰다. 카카오톡은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대폭 바꾸는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시스템 대체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형식과 비슷하게 개편됐다. 가나다순으로 정렬되던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이 인스타그램 피드와 비슷하게 프로필사진과 상태메시지가 피드 형식으로 올라오도록 바뀌었다. 업데이트되는 프로필이 자동으로 노출되고 좋아요와 댓글을 다는 기능이 크게 보여 이용자의 피로도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과거 설정했던 프로필 정보가 공개적으로 보여 사생활 노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주로 사용되는 기능은 메신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채팅' 탭 옆에 새로 생긴 '지금' 탭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틱톡같이 숏폼 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사용자들



▲카카오톡 개편 캠페인 티저 영상

(출처:카카오톡)

은 “메신저 앱에서까지 숏폼을 보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특히 학부모 이용자들은 “어린 이들이 숏폼 영상에 노출되는 걸 막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카카오는 지난 27일 '지금' 탭 내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

뉴를 신설한 바 있다. 이러한 업데이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1점짜리 리뷰가 줄줄이 달리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과 업데이트가 되기 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카카오톡의 대규모 업데이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해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나타났다.

쏟아지는 비판에 결국 카카오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29일 '친구' 탭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외에도 “여러 UX, UI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카카오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라운 사내 공지에서는 업데이트를 진행한 배경과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흥민택 카카오 최고제품 책임자(CPO)는 이에 소셜 확장과 메신저 서비스 강화를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입각에서는 토스(toss) 출신 흥민택 CPO이 일부 기획자와 개발자의 반대에도 개편을 강행했다며 그의 리더십이 카카오 조직문화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와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박지인 기자

parkjiin313@naver.com